

한인 실버 커뮤니티 조성 '첫걸음'

고급 시니어 아파트 설명회
한인들 '높은 관심' 보여



송수 회장이 설명회에 앞서 로 그리멜 대표를 소개하고 있다.

하워드 시니어센터(회장 송수)는 4일 오전 11시 콜롬비아 소재 로리엔 하모니홀내 극장에서 '한국인'을 위해 특성화된 고급 시니어 아파트 10유닛 조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멀게는 버지니아 거주자를 비롯 60여명의 시니어들과 가족들이 참여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송수 회장은 "시니어들의 생활양식 및 의식이 바뀌고 있다. 모든 것을 자식들 위주로 해 놓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로 살던 시기는 지났고 100세 시대를 맞아 본인들의 안락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설계하기 시작했다"며 코리안 실버 커뮤니티 조성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로 그리멜 로리엔 헬스 시스템 대표는 "하워드 카운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엘리콧 시티에 코리안 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한인 시니어들의 주거, 편의, 여가 및 생활 전반에 대한 필요 또한 충족돼야 한다. 코리안 실버 커뮤니티가 실현된다면 미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옵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로리엔 헬스 시스템은 콜롬비아 인근에 10여개의 너싱홈, 보조인 상주 거처(Assisted Living) 및 독립거처지(Independent Living)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주거 형태는 입주희망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보험 및 정부 보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새롭게 시도 되는 실버 커뮤니티 '아파트'의 경우 최대한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면이나 주거비 본인 부담의 면에서 기존의 여타 아파트와 같지만 보조인 상주형 건물 안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영화관, 미장원, 초기 의료진단, 재활시설 및 안전이 보장된다는 면에서는 보통의 아파트가 줄 수

없는 편의를 제공한다.

송회장은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로리엔 측에 리모델링시 원하는 바를 제시하거나 통역이나 의사 진료 스케줄 등의 부대 서비스 요청 등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안전한 장소에서 가사 노동의 부담 없이 친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스튜디오, 1베드룸, 1베드룸 달러스 세 종류의 모델 유닛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답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점으로서는 안전성과 편의가 꼽혔고, 구체화되지 못한 비용과 식사 제공 여부 및 부가 서비스 문제가 의문점으로 남았다.

김은정 기자

MD 운전면허증 리얼ID 100만개 취소 위험

6월부터 최대 5만개 말소

메릴랜드 자동차등록국(MVA)이 연방리얼ID 법률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면허증이 1백만개에 이르며, 6월까지 거주 증명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5만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후 매달 5-8만개의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리얼 ID 법률은 지난 2005년 공포됐으나, 메릴랜드주는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리얼ID는 운전면허증 신청자가 신분 및 거주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만 발급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10월부터 리얼 ID가 없다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군부대 등 보안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이번에 리얼에 들어간 운전면허증은 우측 상단에 리얼 ID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으나, 2017년 10월 연방국토안보부의 감사에서 서류요건을 갖추지 않고 발급된 것으로 간

주돼 재발급을 명령받았다.

MVA는 작년12월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효력이 중단된다는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만약 6월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효력이 말소되며 교통단속 등에 걸려 경찰에게 해당 ID를 제시할 경우 압수를 당하게 된다.



MVA는 2009년 이후 리얼ID 요건에 맞춰 100만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으나, 2017년 연방국토안보부가 스캔 검사를 요구했으며, 그중 8만개를 검사한 결과 6만6300개가 제대로된 거주 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된 것으로 밝혀져 리얼에 들어간 것이다.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리콜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https://realid.mva.maryland.gov>)에 접속해 ID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봐야 한다.

김옥재 기자

알립니다
"우리 사랑 축복해주세요"

메릴랜드 세탁협회 온창은 이사의 장남 온대환 군과 배재식 씨 장녀 배주디 양이 화축을 밝힌다. 양가의 혼주들은 친지들의 축복과 격려를 당부했다.

▷일시 : 2019년 6월 15일(토) 오후 6시
▷장소 : 2319 Waverly Mansion Dr. Marriottsville, MD (Waverly Historic Mansion)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름 공연 계획 전면 취소

재정난 이유

최근 10년새 1600만달러 적자



메릴랜드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BSO·사친)가 여름공연을 2주 앞두고 공연계획을 전면 취소해 대책없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오케스트라 측은 연간 52주 공연 계획을 40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6월과 7월 공연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최근 10년간 1600만달러

의 누적적자가 발생했으며, 공연을 할수록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BSO의 피터 크조미 단장은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우리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며 "계속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정부가 최근 BSO에 320만달러의 보조금 예산을 승인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케스트라 당국의 자구책에 의하면 여름철 유급 주간과 유급 휴가 주간

을 9주에서 4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단원노조측이 심각하게 반발하며 6월16일 예정된 폐이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BSO는 몽고메리카운티 노스베데스다에 위치한 스트라스모어 음악당 정기연주회는 예정대로 치룬다고 밝혔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4 East Rolling Crossroads, #211, Catonsville, MD 21228

강고은 보험

생명보험 / 교육자금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은퇴계획 / 상속계획 / 사업체보험 /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 장애소득보험 / 장기간호보험

C) 240-281-7949
O) 410-465-2700

엘리컷시티 / 락빌 / 애난데일

스마트 디지털 줄자! **파이**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절대 체중계만 믿지 마세요!
중앙일보 핫딜 히트상품! 무료 배송

hotdeal.koreadaily.com
amazon.com/bagel
443-410-4423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메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건후 서류 처리 |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